

POLICY BRIEF 2018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 본 정책브리프는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 중 일부를 재구성 하여 작성하였음

**POLICY
BRIEF
2018**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18.07.27 vol.28

www.jthink.kr

연구진
나정호_도시공간교통연구부 부연구위원

POLICY BRIEF 2018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18.07.27 vol.28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CONTENTS

1.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의 전환 필요성	4
2.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핵심목표	6
3.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8
4.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10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어촌은 어업인의 작업 공간이지만 최근 국민의 공간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전라북도와 정부에서는 해양수산업, 어촌관광 등 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어업인의 작업 공간이자 국민의 공간으로 어촌 공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가치 있는 어촌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어촌 공간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어촌 공간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주로 어장과 어항 중심의 수산업과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어업 외 소득 창출에 집중됨
- 기존의 어촌 지원 정책은 참여주체, 생산성 향상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책과 일치한 방향에서 공간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어촌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열린 공간, 도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를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으로 제안하고 핵심가치로 ‘개방’, ‘참여’, ‘협력’, ‘지속’을 설정함
- 핵심목표는 ‘개방과 도전의 어촌’,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지속과 보전의 바다’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제안함
 - “개방과 도전의 어촌”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다청년창업지원’, ‘어촌경영컨설팅지원단 구성 및 운영’, ‘열린 어항공원 조성’ 등을 제안하였음
 -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업무공간조성 및 운영’, ‘어촌 빈집 리모델링’, ‘어촌 활성화 공모전’, ‘예술인 공간 조성’ 등을 제안함
 - “지속과 보전의 바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바닷가 모니터링단 운영’,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등을 제안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훈련과 거버넌스 구성 등이 필요함

- 어업, 어촌관광 등 어민, 어촌 거주자의 독점 공간이 아닌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어업 외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되 적절하게 관리하고, 어촌 공간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함

- 어촌은 기본적으로 '수산업 지원기지' 역할과 '어촌 거주자 생활터전' 역할을 수행하므로 해당 역할을 중심으로 공간 활성화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였음
 - 현 상황에서 수산업의 참여, 어촌 거주자 생활방식을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산업 생산성 향상, 생활공간 편리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방형 어촌 공간 활용'을 검토해야 함
 - '개방형 어촌 공간 활용 인과관계도'는 어촌 공간을 현행의 수산업 지원 기지와 거주 공간 중심에서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을 담고 있음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의 전환 필요성

- 어촌이 존재하는 최우선 이유는 수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임. 어항을 중심으로 수산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일부 범위에서 어민에게 독점적 공간 활용권한을 부여하기도 함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됨. 수산자원은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하므로 금어기 설정, 총 허용 어획량 제도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어촌 정책은 수산업 생산과 유통 합리성 제고와 어촌 관광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업 생산성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성장 범위에 제한이 없는 영역에서 어업 외 소득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어업 외 소득원은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어촌관광이 대표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어촌 거주공간과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어민 외 인력에게 부분적으로 공간 개방을 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어촌 공간 활용 인과관계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어민이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수산업 R&D, 창업, 어촌 활성화 제안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어촌마을 과소화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

II.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핵심목표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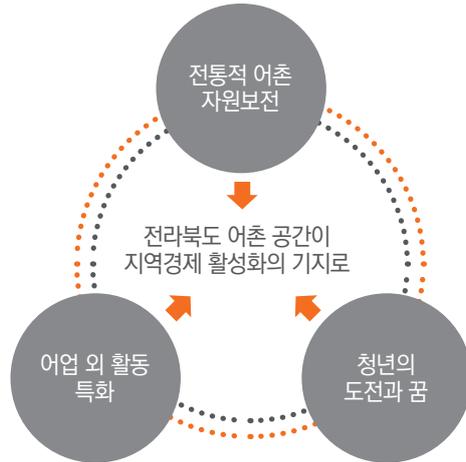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 현황과 전라북도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도출함
 - 강점 : 어촌체험마을의 성공노하우 보유, 세계적인 갯벌자원 보유, 도서·연안 생태관광 자원 보유 등
 - 약점 : 새만금 개발로 해양수산업 발전에 제한, 어항시설 기능재배치 필요, 경관개선 필요, 어촌 공간 활용 인적자원 부족, 지역 특화에 소극적임 등
 - 기회 : 치유, 삶의 질 강조 등 여가 문화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 수산물 소비량 증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등
 - 위협 : 어촌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 수산물 수입량 증가,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 성공노하우 보유 • 세계적인 갯벌자원 보유 • 도서, 연안 생태관광 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개발 해양수산업 제한적 • 어항의 기능재배치·보강 필요 • 어촌 공간 활용 인적자원 부족 • 지역 특화 소극적
Opportunity	SO	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 확산(치유, 삶의 질)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 • 수산물 소비량 증대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형 공간 활용방안 모색 • 갯벌자원 활용 사업화 추진 • 고군산군도 연계 체험관광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중심의 경관개선 필요(어항공원) • 어촌 공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 어촌 지역특화 지원 전문가 컨설팅
Threat	ST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고령화와 어가인구감소 • 수산물 수입량 증가 •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유희 공간 활용방안 도출 • 주민참여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갯벌생태특화 프로그램 개발 •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공간 청년 유인 전략 수립 • 어업 외 공간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 모니터링 추진

〈그림〉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SO, WO, ST, WT 등 활용전략을 도출함
 - SO전략 : 주민 참여형 공간 활용방안 모색, 갯벌자원 활용 사업화 추진, 고군산군도 연계 체험관광 특화 등
 - WO전략 : 어항 중심의 경관개선 필요, 어촌 공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어촌 지역특화 지원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
 - ST전략 : 어촌 유희 공간 활용방안 도출, 주민 참여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갯벌생태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 추진 등

- WT전략 : 어촌 공간 청년 유인 전략 수립, 어업 외 공간 활용방안 모색 필요,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 모니터링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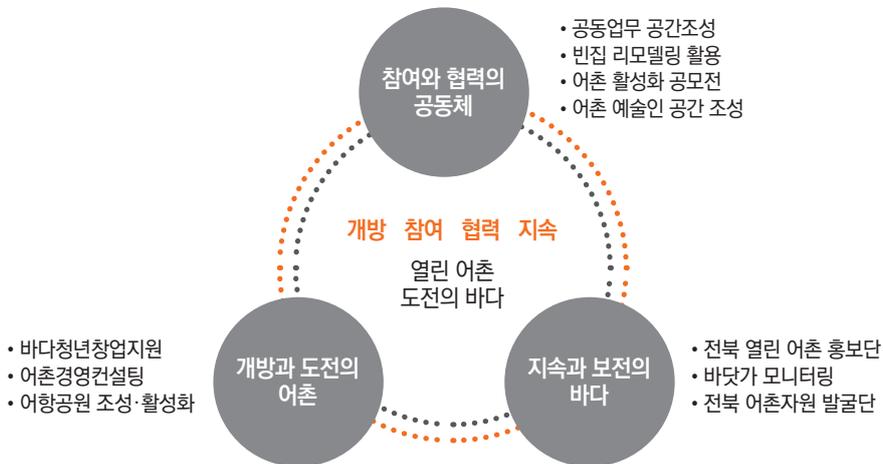


<그림>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

- 종합하면 전라북도의 어촌 공간은 전통적 어촌 자원의 보전과 활용, 어업 외 활동 분야 특화, 지역 청년의 도전과 꿈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비전 및 전략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은 어촌 공간 활용의 비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와 4가지 핵심 가치인 개방, 참여, 협력, 지속에 맞추어 3가지 활용목표를 수립하였음
 - 3가지 활용목표는 '개방과 도전의 어촌',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지속과 보전의 바다'등임



<그림>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목표

III.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1. 개방과 도전의 어촌

- '개방과 도전의 어촌'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을 제안함
- (바다청년창업지원) 좁게는 전라북도, 넓게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어촌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개방하고, 이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의미
- (어촌경영컨설팅지원단) 어업 생산의 전문가이지만 사업화,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어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열린 어항공원 조성) 현재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구 관리, 어항 주변 정화활동 등 소극적 활동과 어항 기능과 조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형물, 벽화 등 예술작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활동을 결합하여 조성

2.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을 제안함
- (공동업무공간조성) 어촌 유휴부지에 공동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어촌거주자, 바다청년창업자, 귀어·귀촌인, 예술가, 일반인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빈집리모델링) 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바다청년창업자, 귀어·귀촌인, 예술가 등 거주 공간으로 제공함
- (어촌 활성화 공모전)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이며, 먹거리, 즐길거리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를 추진함
- (예술인 공간 조성) 어촌 유휴 공간을 예술인 작업 공간으로 제공하여 어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예술작품(문학, 미술, 음악 등)이 등장하는데 뒷받침하고자 함

3. 지속과 보전의 바다

- '지속과 보전의 바다'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을 제안함
- (홍보단 운영) 다양한 어촌 공간 활용 방안은 단기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하는 주체가 필요함

- (바닷가 모니터링단 운영) 기본적으로 어촌은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시설 공사, 어업 강도 조절, 어항 인근 경관 관리 등 다각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함
-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촌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전, 활용하는 주체로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어촌 공간 활용방안 종합〉

비전	핵심가치	목표	추진사업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개방	개방과 도전의 어촌	바다청년창업지원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 조성
	참여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어촌 활성화 공모전
	협력	지속과 보전의 바다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지속	지속과 보전의 바다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링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IV.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어촌 공간은 어업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념적 범위를 확장해야 함
 - 생각의 전환(역발상)으로 전라북도 어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첫째, 어촌 공간을 어업, 어촌관광에 국한하지 않아야 함
 - 공간 활용의 범위를 제한하면 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함. 어촌체험마을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대동소이한 결과가 발생함
 - 어촌마을 과소화 추세도 공간 활용 범위를 넓히면 해소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둘째, 어촌 공간 활용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함
 - 어촌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를 어업 후계자에 한정하기보다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원주민(어민)과 어촌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끼리 협업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크고 작은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함
- 셋째,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비전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함
 - 어촌 공간을 어업 외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되 적절하게 견제하고, 어촌 공간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함
- 넷째, 전라북도 내 어항에 대한 기능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항은 어업 공간 역할이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음. 그러나 최근 어항이 복합공간으로 해양레저, 어촌관광의 거점이 되고 있으므로 기능재배치, 보강작업(안전성 제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과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로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어항의 기능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The logo for jthink Jeonbuk Research Institute. It features a stylized lowercase 'j' in orange, followed by the word 'think' in a bold, lowercase sans-serif font. To the right of 'think' is the Korean text '전북연구원' in a bold, uppercase sans-serif font.

jthink 전북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